

2012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Ⅱ)

대학		학 과 (학부·계열)		수험 번호		성명	
----	--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의 수험번호 및 인적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으로 표기하시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써야합니다.(숫자나 수식, 표 등은 예외)
-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가능합니다.
-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내용은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항 별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불가함.



2012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백년 전 어느 시골 장터에 씨름판이 벌어졌다. 이 시골이 어딘지 알 수도 없지만 또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은, 당시는 단오절이면 어느 고을 할 것 없이 남정네는 활쏘기와 씨름판을 벌이고, 여인네는 그네타기와 창포물에 머리감기로 전국이 떠들썩했기 때문이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라, 이제 막 힘든 모내기를 마치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 담긴 명절이다. 그 시절 그 광경을 타임머신을 타지 않고서도 마치 눈앞의 일인 것처럼 실감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단원 김홍도가 그린 <씨름>이라는, 작은 그림 한 폭 덕택이다.

그림을 보면 구경꾼은 모두 열아홉 명이나 되는데 한 복판의 두 씨름꾼에게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둥글게 빙 둘러 앉아 있다. 오른쪽 위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펴보면 사람 따라 보는 태도도 참으로 각양각색이다. 우선 땅에 놓인 위가 뾰족한 말뚝병거지는 마부나 구종이 쓰는 모자이다. 상투잡이 둘 가운데 한 사람이 마부였던 모양이다. 수염 난 중년 사내는 좋아라 입을 헤벌리고 앞으로 윗몸을 기울이느라 두 손을 땅에 짚었다. 막 끝나려는 씨름 판세가 반대편으로 넘어갈 듯해서다. 인물이 준수한 젊은이는 팔을 베고 아예 비스듬히 누워 부채를 무릎에 얹었다. 씨름판이 꽤 됐는지 앉아 있기도 진력이 난 것이다. 총각머리 세 아이는 눈망울도 초롱초롱한데 큰 녀석은 제법 본세가 의젓하고 작은 아이는 겁이 나는 듯 어깨를 오그렸다.

이러한 <씨름>은 『단원 풍속 화첩』에 들어 있는 25점 낱장 그림 중 하나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인기도 높은 작품이다. 이 그림이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조상들의 세상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재의 친근성 때문이다. 또한 작품이 마치 풍물 시장을 보도하는 신문 속의 삽화처럼 세부가 소상하기 때문이다.

(나) 세잔느의 그림은 결코 과학이나 전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파리에 있을 때, 그는 매일 루브르 박물관에 갔었다. 그는 누구든지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워야 하며, 형태나 평면에 대한 기하학적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풍경의 지질학적 구조에 대하여 조사하기도 하였다. 가시적인 세계 위에 표현된 이러한 추상적인 관계들이 그림 그리는 행위에 작용되어야 한다. 이는 마치 테니스 선수가 공을 칠 때마다 게임 규칙이 뒤따르듯이, 화가의 붓질에는 자율성과 대상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가의 손놀림을 주도하는 것은 단지 원근법이나 기하학 또는 색채에 관한 규칙 등의 특수한 지식이 아니다. 그림을 서서히 드러나게 하는 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율성과 절대적인 충실성으로서의 자연 뿐이며, 바로 이것이 세잔느가 ‘모티프’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그는 풍경의 지질학적 토대를 찾는 데서부터 출발했으며, 세잔느 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 다음 순간 그는 꼼짝 않고 눈을 크게 뜬 채, 주변의 풍경과 함께 서서히 ‘씩을

퍼뜨려' 나갔다.

그는 풍경 지형의 골격을 그린 최초의 목탄 스케치를 채우기 위해 그림의 각 부분을 칠하기 시작했다. 이미지가 채워지고 연결되어 뚜렷이 나타남과 동시에, 서로 잘 어울리는가 싶더니 어느 한 순간 단박에 그림이 완성되었다. “풍경은 나를 통해서 스스로를 사유하며, 나는 그것의 의식이다”라고 세잔느는 말하고 있다. 예술은 본능적 욕구나 훌륭한 취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현 과정일 뿐이다. 마치 언어의 기능이 우리에게 혼돈된 방식으로 나타난 것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이란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어떤 눈 속임수가 아니다. 세잔느는 그 자신의 말처럼 “이제까지 전혀 그려진 적이 없었던 것을 완전하게 그림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우리는 끈적끈적하고 애매한 걸모습을 잇고, 그 외양을 뚫고 그들이 제시해 보이는 사물로 곧장 다가서게 된다. 화가는, 만일 그가 아니었더라면 의식의 각기 분리된 삶 속에 갇힌 채로 있었을 것들, 즉 사물을 담는 요람인 외양의 떨림을 가시적인 대상으로 재포착하여 적합하게 변화시킨다. 이러한 화가에게는 단지 하나의 감정, 즉 낯설음의 느낌만이 존재할 따름이며, 하나의 서정, 즉 존재의 끊임없는 재탄생의 서정이 있을 뿐이다.

(다) 브레히트는 예술이 지니고 있는 마약과 같은 마취 기능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피스카토르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서사극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다. 즉, 예술이 사회의 계급적 질서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켜 혁명적 행동으로 이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의 사적인 불행을 보여줌으로써 연민을 자아내게 하고, 그릇된 사회질서를 암암리에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던 고전적 서사극은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지배 권위와 화해하게 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분노와 혁명적 열정의 김을 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내적 평온을 깨고 의식을 고조시켜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자아내고 그 감정들을 적절히 해소시키고자 하는 비극에서의 카타르시스 효과는 프롤레타리아 연극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술의 마취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이다. 브레히트는 카타르시스적인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억압에 대한 의식을 교훈적으로 고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예술이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목적 또한 개인의 사적인 쾌락이 아니고, 대중을 고무시키는 것이며 추구해야 할 목적을 지적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극에서 유도되는 공포와 연민은 적절히 유도되면 혁명적 행동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브레히트는 관객이 극을 보고난 후 주먹을 쥐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극의 개념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라) 아름다운 것 중에서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예컨대 꽃을 모두 없애버려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전혀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꽃이 없어지기를 바라겠는가? 나더러 장미를 버리라고 한다면 차라리 감자를 버리겠다. 또한 내 생각에 양배추를 심기 위해 꽃밭에서 튤립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공리주의자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들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뿐이다. 유용한 것들은 모두 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필요의 표현이기 때문이며, 게다가 인간의 필요라는 것은 그 가련한 본능과 마찬가지로 역겹고 혐오스럽기 때문이다. 한 채의 집 안에서 가장 유용한 장소는 화장실이 아닌가.

공리주의자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나는 무용한 것을 필요로 하는 부류의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물건에 대해서도 나는 나에게 별로 소용이 되지 않는 사람과 물건을 좋아한다.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그릇보다도 용이나 원앙새가 그려진, 나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중국도자기를 더 좋아하고, 나의 재능 중에서도 수수께끼같이 모호한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라파엘로의 진품이나 아름다운 여인, 예를 들어 조각가 카노바의 모델이 된 보르게즈 공주나 목욕하는 율리아 그리지의 몸을 보기 위해서라면 나는 프랑스 국민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기꺼이 버릴 것이다. 나는 음악애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벨소리보다는 싸구려 바이올린이나 바스크인의 북소리를 더 좋아한다. 나는 반지를 사기 위해 바지를 팔고, 꽃을 얻기 위해 빵을 양보할 것이다. 내 생각에 문명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혹은 한 잔의 진한 커피를 음미하며 천천히 마시는 일 같다. 나는 또 시를 정교하게 써내는 사람을 존경한다.

(마)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인공적 기술, 즉 인간에게 쾌의 감정을 제공하는 인공적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뇌를 전기로 자극해 쾌의 감정을 제공하는 기술은 가장 최신의 인공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오래된 인공적 기술이다. 미술은 시각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기술이다. 음악은 청각을 통한 기술이다. 오페라나 영화는 시각과 청각을 종합하여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기술이다. 춤은 육체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기술이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인공적 기술로서의 예술도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출현하였다. 예술을 위한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은 그 무엇인가를 위한 예술이다. 그 무엇인가는 번식과 생존이다. 예술은 번식과 생존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인공적 기술이라는 것이다.

다윈은 아름다움이란 종족 번식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아름다운 꽃은 벌의 눈에 잘 띄어 번식에 유리하다. 민들레나 췌기풀과 같이 바람에 의해서 수정되는 꽃은 아름다운 빛깔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곤충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식물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열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잘 익은 딸기와 버찌가 아름다운 색깔을 띠는 것은 잘 먹혀서 그 종자가 배설물에 섞여 전파되기 위함이다. 조류, 어류, 파충류, 포유류 등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들 생물의 경우 수컷들의 아름다운 형태나 음식은 끊임없이 암컷들에 의해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윈은 미적 감정을 포함하여 슬픔, 노여움, 사랑 등의 다양한 감정에 대한 자신의 논의가 인간을 포함한 생물 일반에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예술이 미적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다윈이 살았던 서양 근대의 대표적 관점이었다. 따라서 생물 일반의 미에 대한 논의가 인간의 예술에도 타당하다는 점을 다윈 스스로 인정하리라

고 추측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바) 플라톤이 모방론을 거론한 것은 예술의 공통적 특성으로서의 모방의 신비를 친절히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아니었다. 모방은 두 가지 사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한다. 즉 모방의 대상과 결과는 성질상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둘의 관계인 것이다. 모방의 이론이 그 관계를 설명하는 일을 그 최대의 과제로 삼을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모방의 대상이 통상적 의미의 훌륭한 것일 때 그것의 모방의 결과는 (잘만 모방한다면) 역시 ‘훌륭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문학적 모방의 대상은 훌륭한 것이 못된다는, 따라서 그 모방의 결과도 결코 훌륭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그의 인식론 내지 형이상학의 기본 전제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성질의 것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그의 형이상학은 관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무상하고 무질서하고 복잡다단한 이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여, 영원불변하고 절대적 질서와 조화가 실현된 관념의 세계가 존재한다. 관념은 곧 진리이다. 불변의 관념의 세계, 곧 진리의 세계는 철학, 특히 플라톤 식의 기하학적 철학으로써만 간혹 도달할 수 있을 뿐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은 그 진리의 모습의 타락된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예술은 불행히도 철학이 못되기 때문에 진리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감각의 세계를 다루는 정도에 그치며, 그것도 제대로 그 세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보다는 단지 흉내를 낼 수 있을 따름이다. 예술적 모방은 진리로부터 사람의 정신을 멀어지게 만들며, 따라서 순전히 사람의 감각 기능을 교묘히 현혹시켜 어리숙한 사람의 경탄을 자아낼 뿐이다. 그러한 모방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40점, 530~550자]

[문제 2] 제시문 (나)와 (마)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바)에 나타난 논지를 비판하시오. [40점, 530~550자]

■ 다음의 상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십시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D사는 내년도에 매장을 대폭적으로 신설하고자 한다. 매장의 신설을 위하여 확보한 자금은 모두 7억 5천만 원이며, 신설 예정인 전체 매장의 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개 이하로 정하려고 한다.

D사의 예상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매장 하나를 신설하는 비용은 5천만 원이며 한 달 이익은 4백만 원이고, 제과점 매장 하나를 신설하는 비용은 3천만 원이며 한 달 이익은 3백만 원이다.

[문제 3] D사가 월별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신설해야 하는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매장 수를 각각 구하고, 그 과정을 기술하십시오. **[20점]**

- 끝 -